



Bar attachment를 이용한 하악의 임플란트 지지 overdenture의 수복증례

김 난 영*, 동 진 근, 오 상 천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악골이 심하게 흡수된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이 저하되고 저작시 동통 등으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치아를 점차 소실하여 무치악에 이른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위생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overdenture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성공적인 보철 수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최종 수복물에 맞는 위치에 적절한 크기와 수의 임플란트가 매식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지지 overdenture의 경우에도 환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과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해부학적 조건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한 초기 진단과정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지지 overdenture는 임플란트의 수와 식립 위치에 따라 임플란트와 조직 지지의 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유지 방법으로 ball attachment, magnetic attachment, bar attachmen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본 증례에 사용한 bar attachment는 임플란트 간의 splinting이 가능하여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의 분산이 용이하며 유지력이 우수하여 잔존 치조제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청결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기공과정이 복잡하고 tongue space를 침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증례는 양악 무치악 환자에서 상악에 통상의 총의치를 제작하고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Hader bar와 Dolder bar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지지 overdenture로 수복하였다. 하악의 overdenture는 Implant-retained and tissue-supported type 이므로 점막조직 지지를 충분히 얻기 위하여 일반적인 총의치의 제반 요건을 따르고 완전한 총의치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고자 한다.